
라틴아메리카 현 사회운동의 특징

마르셀라 알레한드라 파라

마르셀라 알레한드라 파라(Marcela Alejandra Parra)는 멕시코 플라스코(FLASCO) 연구소 사회과학 석사과정과 바르셀로나 자치대학 사회심리학 박사과정을 마치고 아르헨티나 코마우에 국립대학 강사이자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I. 서론

우리의 출발점은 유토피아이다.

우리는 더 공정하고 연대적이며 인간적인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한다. 사회적 관계가 기계적인 논리가 아니라 애정과 공동선에 의해서 유지되는 세계를 위해 싸운다. 우리는 비인간적인 자본주의와 인간이 다른 인간을 착취하는 상업주의 논리에 반대하며 싸운다. 우리는 지금 서 있는 곳에서, 사파티스타의 말처럼 '많은 세계를 담을 수 있는 하나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 투쟁한다. 이것이 우리를 이끌어온 전망이자 지향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라틴아메리카 현 사회운동의 특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올리베르 코스티야(Oliver Costilla 2007)에 의하면, 라틴아메리카 여러 나라에

서 21세기의 첫 10년 동안 새로운 형태의 저항과 시민투쟁, 사회운동이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운동은 1980년대와 90년대 라틴아메리카 대중운동과 지역운동과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운동 과정 전체에 이런 차이점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오늘날 사회과학 방법론의 이해와 개념화에 도전하는 새로운 경향이다.

라틴아메리카 여러 나라의 사회운동 과정 전반을 총괄해보겠다는 욕심은 접어둔 채, 이 주제에 대해 언급하는 몇몇 저자들과 나눈 대화, 그리고 필자가 박사 논문에서 다루었듯이 2001년 아르헨티나 위기에서 시작된 투쟁의 경험에서 형성된 ‘절합’을(Haraway, 1991) 통해 사회운동 과정의 주요한 특징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또한, 멕시코 치아파스 투쟁과 사파티스타 운동에 대한 필자의 석사논문에는 포함된 몇몇 고찰도 이 글에 포함하고자 한다.

II. 신자유주의 정치 이식에 대한 반작용으로 1990년대에 증가한 사회적 갈등

세오나네 와 타데이(Seoane y Taddei 2003)에 의하면, 1995년에서 2000년도까지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신자유주의 모델에 의문을 제기하는 저항이 급격히 증가하고 국내 차원의 사회운동이 확고해진 시기였다.

2000년에서 2010년까지의 시기를 살펴보면, 그 근간에 자본주의 시스템이 만들어놓은 현재 모습의 비판에서 출발한 사회운동이 확산되었다. 위에 언급한 저자들은 이러한 사회적 갈등의 심화로 인해 신자유주의 체제를 문제 삼는 이중의 위기가 드러났다고 본다. 하나는 지역과 국제적 차원으로 확장되는 경기후퇴가 특징인 경제위기이며, 다른 하나는 불안정한 방식이기는 하지만 신자유주의 체제가 1990년에서 1995년 사이에 획득한 듯 보이는 정당성의 위기이다.

이와 동시에 사회적 저항의 증가는 라틴아메리카 사회관측소(OSAL)가¹⁾ 19개 라틴아메리카 나라에서 체계적으로 기록한 것과 같이 수치상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시위의 주기’처럼 질적이고 개념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Tarrow 1997), 이는 신자유주의 이식으로 야기된 여러 현상부터 분석해가야만 한다(Seoane y Taddei 2003).

시위의 주기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으로는 1994년 초의 멕시코 사파티스타 봉기, 볼리비아 코차밤바의 물 전쟁, 볼리비아 차파레의 코카 재배 농민 투쟁, 1996년과 2000년 에콰도르 원주민연합(CONAIE)가 주도한 봉기로 인한 정권 교체, 아르헨티나 실업자운동의 등장과 급속한 확산, 브라질 무토지농업노동자운동(MST)의 대규모 토지 점거, 파라과이의 농민운동이 쿠바스 그라우 대통령의 실각에 미친 영향, 후지모리 정권의 종말을 가져온 페루 각 지역의 시민전선 등이 있다(Seoane y Taddei 2003).

이런 사회운동이 급속하게 등장해 견고해지고 확산된 과정은 조직화의 측면에서나 투쟁의 형태, 정체성의 각인, 집단행동의 개념화, 권력·정치·정부와 맺은 관계의 측면에서 보아도 매우 독특한 점이 있다. 또 1990년대의 사회운동을 일면 계승하고 일면 단절하면서 최근 10년간 독특한 과정을 걸어왔다.

이처럼 라틴아메리카에서 사회운동이 증가한 것은 다른 대륙(특히 유럽,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북미와 아시아)에서 운동이 증가한 것과 거의 동시적이었으며, 반세계화운동, 세계화에 대한 공포, 신자유주의의 세계적 확산에 반대하는 운동 등으로 명명된 현상을 만들어왔으며(Seoane y Taddei 2003), 이는 새로운 국제주의의 도래라고 주장하기도 한다(Svampa 2007).

1) 2000년 라틴아메리카 사회과학 단과대학(FLASCO) 내에 설치된 라틴아메리카 사회연구 프로그램 이름-옴긴이.

이 과정에서 1999년 11월 시애틀, 2000년 프라하, 2001년 제네바 운동이 중요한 전기가 되었고, 이후에는 세계사회포럼 개최와 아메리카대륙 자유무역지대(ALCA) 창설에 대한 거부를 동력으로 삼아 전개되어왔다(Oliver Costilla 2007).

올리베르 코스티야는 이러한 사회운동의 두 가지 맥락을 지적한다. 첫째는 국내적인 맥락으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영향, 정부의 보수적인 개혁, 작은 정부,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와 시민사회의 저항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둘째는 국제적 맥락으로, 미국의 헤게모니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사회적 저항과 운동이 중심을 형성했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에서 발생한 운동은 중심부 국가에서 발생한 운동과 비교했을 때 색다른 특징이 있다. 오래전부터 구티에레스는 중심부 국가와 마찬가지로 주변부 국가에서도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 혹은 반항적인 젊은이들이 투쟁을 주도한다고 하더라도 중심부 국가의 투쟁 과정과 동일하지 않음을 지적했다(Gutiérrez 1989).

구체적으로,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이른바 ‘무역자유화에 대한 합의’가 진전됨에 따라서 새로운 운동의 여지가 생겨났고, 미국이 미주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여 라틴아메리카 국가를 종속시키려는 시도에 저항해왔다(Svampa 2007).

일반적으로 라틴아메리카의 사회운동은 노동자 계급, 중하위 계급, 제도권에서 밀려나 사회의 외곽에서 살아가는 이주 농민과 같은 민중이 주도해왔다. 반면 중심부 국가에서 이런 사회운동은 소비사회의 틀 속에서 대부분 중산층에 속하는 개인들이 주도해왔으며, 그들은 제도의 틀을 벗어나지는 않지만 대안적인 형태를 추구하는 반문화운동을 위해서 모여들었다(Gutiérrez 1989).

요약하면, 이 글에서 분석하려는 2000년에서 2010년까지의 사회운동은 1990년대부터 시작된 사회적 갈등이 단초였으며, 신자유주의를 비판하기 위한 운동이었다. 그리고 이런 운동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지만 라틴아메리카만의 독특한 특징이 존재한다.

III. 현재 라틴아메리카의 운동 전개 경향

21세기 첫 10년은 라틴아메리카 여러 나라에서 새로운 형태의 항의, 시민 투쟁, 사회운동이 생겨났다. 이런 운동은 1980년대와 90년대의 라틴아메리카 대중운동이나 지역운동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Oliver Costilla 2007). 즉, 신자유주의와 작은 정부에 대해 맹렬히 반대하며, 이러한 반대는 이전보다 훨씬 크고 더 명백하다는 것이다(Oliver Costilla 2007).

여러 저자들이 라틴아메리카의 현재 사회운동 과정의 특수성에 대해서 고찰했다(Gutiérrez 1989; Zibechi 2003; Svampa 2007; Vakaloulis 1999; Ciuffolini 2007; Colectivo Situaciones 2002; Oliver Costilla 2007; Dávalos 2006 등).

사회운동의 모든 과정에서 이런 특징이 다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특징은 국가적이고 지역적인 차이를 넘어서고 있는데(Oliver Costilla 2007), 사파티스타 봉기 같은 원주민운동, 아르헨티나의 피케테로²⁾ 조직들과 같은 도시 토지운동, 볼리비아의 페후베(Fejuve)³⁾ 조직, 브라질의 집 없는 사람들 조직, 무토지농업노동자운동, 그리고 댐건설 반대운동 같은 사회·환경운동, 페루와 에콰도르의 원주민 농민 저항운동, 아르헨티나와 칠레에서 거대 노천 광산개발에 반대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민자치회 등에서 그러한 특징을 찾을 수 있다(Svampa 2007).

이런 새로운 경향들은 오늘날 사회과학의 이해와 개념화에 도전하고 있다(Oliver Costilla 2007). 이런 의미에서, 라틴아메리카 여러 나라의 사회운동 과정

2) 90년대 중반 아르헨티나에서 대중시위의 방법으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피켓으로 대오를 만들어 시위를 하며 주로 도로를 점거하고 끊어서 교통을 막는 방식을 많이 쓴다. 통상적으로 피케테로 운동이라고 하면 아르헨티나 실업자운동으로 이해된다-옮긴이.

3) 엘 알토 주민 위원회 연맹(Federación de Juntas Vecinales de El Alto): 공식적으로는 1966년에 세워졌으나 2003년 정부가 멕시코에 헐값으로 천연가스를 파는 계약을 하고, 칠레로 가스관을 내어 수출하는 계획을 세우자 이에 반대하며 불거진 가스 전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옮긴이.

을 총괄하기보다는 이 주제에 대해 고민해온 저자들의 관점, 그리고 필자가 박사 논문에서 논의한 이런 과정의 주요 특징, 즉 2001년 아르헨티나 위기에서 시작된 투쟁 경험(주민자치회, 노동자가 장악한 자주관리 공장, 실업자운동, 물물교환 거점 등)에서 확립된 절합의 관점에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IV. 항의의 형태와 운동 초기의 절합이 과편화되는 현상

바칼루리스(Vakaloulis 1999)에 의하면, 저항 형태의 과편화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л 필요는 없지만, 이것은 ‘모두 함께’라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다는 것을 드러내는 동시에 사회적 해방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아직은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 과편화의 긍정적인 측면은 역사적으로 노동운동에서 계급에 대해 급진적으로 접근하는 태도가 종말을 맞았다는 것이다. 부정적인 측면은 현대적 갈등에서 집단 운동의 노선을 구분하는 데 방해물이 된다는 것(Vakaloulis 1999), 그리고 그러한 과편화가 전통적인 노동자운동과 농민운동의 고유한 해방 전략 기획을 상당히 잃어버림으로써 노동자 조직과 정치적 존재의 기반을 약하게 하는 자본주의 재구성 과정의 틀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점이다(Dávalos 2006).

다발로스의 견해에 의하면, 운동에서 정치적 능력과 장기적 비전의 방향 설정 능력이 약화되었는데, 이런 것들은 필요하기는 하지만 과거의 좌파와 전통적인 사회 활동가들이 속한 관료적이고 위계적인 정당과는 질적으로 달라야 한다.

요약하면, 지금은 사회변화에 대한 강렬한 열망과 역사적 지평의 한계(현실 사회주의의 몰락, 시장의 힘 등) 사이에 일종의 모순이 존재하며, 이러한 엇갈림으로 인해 사회운동의 정치적 영향력은 제한될 것이며, 권리회복을 위한 운동은

짧은 기간 동안 폭발할 것이다(Vakaloulis 1999).

그러나 올리베르 코스티야(Oliver Costilla 2007)에 의하면, 전면적인 반독재투쟁과 제도적 민주화를 성취했다고는 하나(아르헨티나 1983년, 브라질 1983년에서 84년, 멕시코 1988년 등) 1980년대와 90년대의 사회 투쟁의 주요한 부분은 사회 부문별 이해관계(주거, 건강, 교육, 서비스, 사유재산 관리, 대출 등)와 연관되어 있었으며, 대체로 소수 활동가들 중심으로 움직였다. 1990년대 말부터, 특히 2000년대부터 라틴아메리카에서 일어난 시위, 시민 투쟁, 사회운동은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참여를 보여주었으며, 이데올로기적이고 정치적인 단일성의 바탕 위에서 토론 과정을 거쳐 요구사항과 정책을 마련해왔다.

이 시기에 사회운동 과정이 어느 정도는 파편화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이는 또한 다양한 사회적 투쟁 사이에서 초기에 형성되는 절합의 관점에서도 생각해볼 만 하며, 그러한 다양한 사회적 투쟁은 전통적인 운동의 논리에 대안을 제시한다.

V. 투쟁 형태의 영토화와 옛 공간들의 새로운 의미 창출

현재 농촌운동뿐만 아니라 도시운동에서도 영토는 저항, 재의미화,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내는 공간으로 전환되었으며(Svampa 2007), 동시에 새로운 권력과 대치의 공간이 되었고, 갈등의 핵심은 전국적 차원의 문제에서 지역적인 문제로 옮겨갔다(Dávalos 2006).

영토는 물질적 차원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자생적으로 조직되는 곳으로서 라틴아메리카의 사회운동, 농민운동, 원주민운동, 사회·환경운동, 도시운동을 구성하는 특징 중 하나로 등장했다(Svampa 2007).

이러한 영토성은 주민자치회, 물물교환센터, 실업자운동의 경험에 근본적으

로 반영되어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 모든 조직의 요구는 마을의 토지 공간에 깊숙이 뿌리내린 것이었다.

네우켄의 한 피케테로 조직원이 들려주는 이야기이다.

도시는 네 개로 나뉘었습니다. 우리는 네 개 지역으로 나뉘어서 살고 있습니다. 북쪽에는 마을 두세 개가 있는데, 센테나리오라고 불립니다. 도로의 남쪽 부분에서 그 아래쪽으로 남쪽 지역이고, 저기 서쪽 지역은 너무 커서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동쪽 지역은 중앙부에서 가깝습니다(2005년 6월 아르헨티나 네우켄의 바리오스 데 피에⁴⁾ 여성 지도자와 나눈 대화).

또한, 코르도바에서 물물교환을 조직하는 이의 이야기도 있다.

코르도바는 네 지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수도 지구, 시에라스 치카스, 알타 그라시아, 그리고 한 지구가 더 있는데 이름이 기억나질 않아서... 아, 푸니야 지역입니다(2004년 아르헨티나 코르도바의 비야 아엔테 물물교환센터 구성원과의 대화).

이러한 영토성은 전국 차원의 운동이 아니라 대치와 저항이 심화되어가던 지역 차원의 운동에서 중요해졌다(Dávalos 2006). 그래서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은 그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영토적인 운동을 구성하며, 생명과 다양성에 대한 명백한 수호와 옹호를 통해 공동체와 영토, 문화를 하나의 덩어리로 결집시켰고, 동시에 이런 지역 차원의 운동은 가장 기초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투쟁과 연계되었다(Svampa 2007).

4) 2001년 결성된 아르헨티나 실업자운동 조직-옴간이.

아르헨티나의 코르도바 실업자운동에 참여한 여성의 말이다.

예를 들어 2003년 내내 우리는 마을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막 겨울이 시작되었는데, 전기가 끊어졌습니다. 저기 윗동네가 주거지이기 때문에 전기가 끊어졌습니다. 전력 공급선이 없어서 이쪽 동네의 전기를 끌어다 썼습니다. (...) 2003년 동안 우리가 부딪힌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옆에 있는 여기 보건소였는데, 완전히 엉망이었습니다. 보건소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유 배급도 하지 않았고, 소모품도 안 갖추고 있었으며, 여자 소아과 의사 한 명도 부족했습니다. 돈도 없었고요(2004년 아르헨티나 코르도바의 테레사 로드리게스 운동⁵⁾ 구성원과 나눈 대화).

땅은 단지 생산 수단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새로운 사회조직을 구축하는 장소로 간주되었으며, 그곳에서는 새로운 운동 주체들이 자신의 공간을 제도화해서 그곳을 물리적이고 상징적으로 점유해가며 자신들도 그 제도 안으로 들어갔다(Zibechi, 2003). 이런 의미에서 영토는 땅과 동일하지 않다. 왜냐하면 영토는 물리적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공간을 점유하는 방식이자 하나의 문화이기 때문이다(Zibechi, 2003).

이런 공간들은 각각의 주체가 자신을 인식해가는 곳이자 타인과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공간이며, 미래의 대한 전망을 염려하지 않은 채 현재를 준비해나가는 곳이 된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공간에 가까이 있는 구체적인 것과 직접 접촉하며 새로운 형태의 틈새의 자유가 만들어진다.

5) 1997년 4월 12일 네우켄의 쿄트랄코에서 시위에 참가했던 가사노동자 테레사 로드리게스가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곧 그녀의 이름을 딴 피케테로 운동이 결성되었다-옮긴이.

영토의 상징적인 의미에 대한 가치평가가 다시 이뤄지며 사회적 관계와 연대의 요소로서의 공간을 회복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마을의 삶은 사회적 네트워크의 총체가 만들어지는 세밀한 상호 관계 속에서 이뤄진다. 그런 사회적 네트워크는 그 동력을 통해 생존의 방식을 확보하게 된다(Zibechi, 2003). 네우켄의 실업자 운동의 일원의 이야기이다.

우리는 닭장, 공동체 텃밭, 옷 재활용 강좌, 파스타 공장 등과 같은 소규모의 생산 활동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2005년 6월 아르헨티나 네우켄 주의 바리오스 데 피에의 한 여성 지도자와 나눈 대화).

시우폴리니(Ciuffolini 2007)가 보기에 사회적 네트워크는 어떻게 보면 사회조직 해체의 긍정적인 결과이다. 마을의 삶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네트워크는 행동과 조직의 자연스러운 공간(식당, 조합, 교회 등)을 영토에 되돌려주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일상의 지형도에 상호 교환하는 언어와 재화를 가져와서 그 지형도를 다시 그리게 만든다.

이런 식으로 공간은 안정된 인간관계의 흐름, 구체적이고 공고하며 지속적인 연대의 전략을 갖게 되며, 그 인간관계는 일상적인 것을 정치화하는 데 유리한 장으로 전환된다(Zibechi 2003). 이런 의미에서 마을은 다시 주체성의 영토가 된다. 마을의 영토에서 사회적 관계가 작동하며, 영토를 점거하는 수동적인 방식에서 영토에서 살아가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주체적인 작용이 일어난다(Colectivo Situaciones 2002).

이런 과정에서 삶의 조건은 정치화되며, 영토는 ‘공유되는 것’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정체성을 부여받기도 하고,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곳이 된다(Zibechi 2003). 마을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소한 관찰, 정보, 입장, 결정, 행동 방

식을 교환함으로써 정치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은 재절합하며, 그 공간의 과거와 연결되고 미래도 전망하는 고유한 전략에 부합하게 된다(Ciuffolini 2007).

시베치가 지적하기를(Zibechi 2003), 이러한 영토화는 90년대에 이식된 신자유주의 정책을 바탕으로 움직여온 공장 생산의 방식이 해체된 것과 연관되어 있다. 신사회운동은 물리적으로 되찾거나 정복한 공간에 뿌리를 내렸고, 가난한 사람들이 공장을 장악한 것은 공장의 오래된 영토성의 위기에 대한 그들의 전략적인 대답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 영토가 획득한 의미는 노동의 세계에서 일어난 전환이라는 틀 속에서 봐야 이해할 수 있다(Ciuffolini 2007). 마을은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정의 내릴 수 없거나 자신이 제공한 노동의 대가만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개인과 가족을 사회적으로 수용하는 주요한 요소로서 기능하게 되었다(Merkleni 2005).

이런 식으로 마을은 밀접하게 연관된 가족과 이웃이 살아가는 세계를 구조화하는 지역사회 시스템을 통해 사람들이 경험을 안정화하는 주요한 바탕이 되며, 운동의 형태를 만들어가는 사회 조직과 정치 조직이 집단행동을 펼치는 환경이 된다(Merkleni 2005).

그러나 레본(Rebón 2003)에 의하면, 비록 마을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수많은 좌파 조직이 정치활동을 전개해나가는 데 마을이 최적의 장소라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공장을 점유하는 과정을 보면 이런 시각을 재고하게 된다. 왜냐하면 마을이 공장이 될 수 있지만 전통적인 공장은 원래 방식을 고수하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영토를 논쟁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보는 것은 가난을 통제하고 억압하려는 권력이 새로운 사회적 정책들을 고안해서 이식한 데서 나왔다는 것, 그리고 자연자원이 풍부한 전략적인 공간에서 자본의 논리가 채택한 방식

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Svampa 2007).

그래서 마을 공간에서 활동을 축적해나가는 것이 마을을 정치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마을을 제한과 배제의 공간으로 바꿀 수도 있다(Ciuffolini 2007). 마을을 둘러싼 경계선은 다양한 사회적 행위자로 구성된 ‘우리’의 이질성을 포용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사회적 행위자의 차이를 강조하고, 심지어 사회의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위협적인 존재로 보일 수도 있다(Zibechi 2003).

VI. 자치의 추구라는 관점으로 본 사회운동과 제도, 정당 간의 새로운 관계

시베치(Zibechi 2003)에 의하면, 현 사회운동의 특징은 정부뿐 아니라 정당으로부터 자치를 확보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 언급하고 있는 운동의 경향을 보면 자치의 추구는 ‘정치를 한다는 것’에 대한 일정 정도의 거부감과 맞닿아 있는 듯 보이며, 이는 다음 구절에도 드러난다.

2001년 당시에는 누구라도 정당에 대해 이야기하고 공무원과 논의해본다는 생각을 하며 정치인을 찾아다녔는데,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어떤 제안도 내놓을 수 없는, 자치가 결여된 사람이 됨을 의미했다. 이는 매우 심각한 것이었다(2004년 9월 아르헨티나 코르도바의 로스 나랑호스 주민자치회 구성원과 나눈 대화).

수십 년 전의 상황과는 달리 현재는 마을공동체 구성원, 코카 재배 노동자, 무토지농업노동자, 아르헨티나의 피케테로와 도시 실업자 등이 자신들의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자치를 만들어간다는 의식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Zibechi 2003).

이런 자치는 조직의 축으로서뿐만 아니라(고유한 법을 갖게 된다는 의미에서), 자기 결정권과 대안적인 세계의 더욱 유토피아적인 지평을 건설하기 위한 전략적인 계획으로서 나타났다(Svampa 2007).

그러나 실제 만나서 대화를 나눠본 몇몇 이들은 신사회운동의 특징 중 하나로 얘기하는 그러한 자치가 실제이거나 혹은 자신들의 직접 경험에서 나온 열망이기보다는 타인이 운동에 요구하는 것인 경우도 있다고 경고한다. “사람들이 피케테로 활동가와 접촉해서 그들에게 사회의 그 어떤 집단도 가지고 있지 못한 자치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것을 봅니다”(2004년 9월 아르헨티나 코르도바의 로스 나랑호스 주민자치회 구성원과 나눈 대화).

이와 동시에 레본은 공장 점거 과정의 구체적인 경우를 언급하며 이런 경험에서 자치가 발현된 것은 실업에 대처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찾아낸 가장 효율적이며 또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지, 자치가 노동자들이 추구하는 이상이기 때문은 아니었다고 말한다(Rebón 2003). 또한, 공장 점거를 주도한 많은 노동자도 사주가 월급을 제대로 지불하기만 한다면 사주의 명령을 받으며 다시 일하는 데 큰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정당과의 관계에서 자치를 적극적으로 추구한다는 시베치의 주장과는 달리 레본은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온정주의의 산물이며, 몇몇 운동에서는 정부와의 관계에서 자치를 유지하겠다는 결심이 확고하지만 노동자들이 나지도부 모두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운동가들과 대화를 해보면 자치는 특권적인 상징적 의미로 등장하지만(Laclau 1996)⁶⁾ 모든 운동이 자치를 추구하지는 않으며, 자치를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경

6) “수평적인 관계, 자치에 대한 논의는 매우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즉, 방법론적인 논의는 매우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2004년 9월 아르헨티나 코르도바의 코르도바넥소의 멤버들과 나눈 대화).

우에도 절대적인 가치로 간주하기보다는 오히려 여러 사회적 주체와 관계에서 대화하고 협상하는 다양한 전략적 요소로 간주한다.

이와 관련해 코르도바의 주민자치회의 몇몇 구성원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한테는 정부가 있고, 우리가 계속 세금을 내고 계속 이 사회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수호해야만 하는 시민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권리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치, 자주 관리의 관행을 만들어가려고 합니다(2004년 아르헨티나 코르도바의 로스 나랑호스의 자치회 구성원과 나눈 대화).

바칼루리스(Vakaloulis 1999)의 견해에 따르면, 정당시스템과 정부와의 관계에서 자치를 유지한다는 것은 사회적 불만을 반제도적인 것으로 바꾼다는 의미는 아니며,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거의 통제불가능한 기술적인 문제로 파악함으로써 주요 이해당사자에게 해를 끼치는 반민주적인 통치 개념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당과 특정 방식의 관계를 유지하고(항구적이고 종속적으로 연결된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이익이 일치하는 외부적인 관계), 사회운동과 제도, 정당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려는 경향이 존재한다. 이는 사회운동이 현실정치(realpolitik)의⁷⁾ 조건을 수용하기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가 제도의 도움을 받아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해서 독립과 자치를 확보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Oliver Costilla 2007).

올리베르 코스티야는 현재 운동이 의회와 정치계로 들어가는 가능성과 그 한계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지적한다(Oliver Costilla 2007). 이런 입

7) 현실정치란 이론이나 윤리보다는 실제적인 이해관계에 기초한 정치이다. 이러한 현실정치는 국가가 이론적-윤리적 원칙보다는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여긴다. <http://es.wikipedia.org/wiki/Realpolitik> 참고.

장은 과거의 운동이 제도권 정치 선상에 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던 것과는 반대이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사회운동은 시민사회가 어느 정도 정치에 개입하는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와 동시에 바로 시민사회 자체를 바꾸기 위한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작업을 전개해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더욱 명확히 보여준다.

사회운동은 사회적 인정의 공간을 확보했으며, 이런 공간의 존재는 운동이 건설적인 정치적 역할을 맡게 되었음을 의미하게 되었다(Oliver Costilla 2007).

VII. 문화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정체성을 확인하기

시베치(Zibechi 2003)에 의하면, 종족적 차이와 성적인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원주민 운동과 여성운동에서 중요하며, 그 가치는 운동의 과정에서 평가를 받는다. 원주민과 여성은 거대한 사회 그룹이면서도 시민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대안 세계를 모색하려고 한다.

한 피케테로 조직의 여성의 말이다.

마을 여성들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논의에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공부와 역사 워크숍을 통해 항상 성장해나가고자 하는 동지들입니다(2005년 6월 아르헨티나 네우켄의 바리오스 데 피에 여성 지도자와 나눈 대화).

이에 대해 구티에레스는 신사회운동이 근본적인 두 가지를 다룬다고 지적한다(Gutiérrez 1989). 즉, 인간에 대한 새로운 가치 평가(삶의 질, 민중적 전통의 자족

성과 문화적 가치)와 자본주의의 심장부를 직접 공격하는 것(소비에 반대하는 투쟁, 야만적인 산업주의와 군산복합체에 반대하는 운동 등)이다.

자본주의 시스템을 교란하는 것에 대해 코르도바 물물교환센터의 한 구성원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물물교환은 가치 시스템이며, 일을 창출하지만 이익을 창출해내지는 못합니다. 정당하고 공정한 상호교환을 하는 것이지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이 타인의 노력과 나의 노력을 상호 교환할 수 있는 평등을 지향한다는 점이 가장 고귀하며, 가장 고유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이를 목표로 삼았습니다(2004년 9월 아르헨티나 코르도바에서 나눈 대화).

VIII. 교육 공간의 창출과 독자적인 지식인을 키워내는 능력

시베치는 운동이 자신의 내부에 운동 지도자를 교육시키고 키워내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Zibechi 2003). 이 시스템은 종종 대중교육에서 영감을 받은 고유한 교육학적 기준을 갖고 있으며, 외부의 지식인들이 마치 자기들의 것인 양 운동에 대해 이야기하던 관행을 벗어난다. 시베치는 피케테로 운동 진영이 국내의 여러 주(州)가 이 운동에 참여하지 않은 현실을 받아들이며 자신들이 교육을 장악해야 할 필요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덧붙인다.

네우켄의 바리오스 데 피에의 여성 지도자 한 명이 문맹퇴치와 대중교육에 대한 자기 조직의 경험에 대해서 들려준다.

우리들은 ‘그래, 나는 할 수 있어’(Yo sí puedo)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작년

말 키르츠네르 정부는 ‘엔쿠엔트로’(Encuentro)라는 프로그램을 실시했는데, 이는 젊은이들과 성인들의 문맹퇴치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는 그 캠페인에 참가했고, 오늘날 네우켄에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문맹퇴치센터가 25개 운영됩니다. 성인의 문맹퇴치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조직은 대중교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중적인 조직을 통해서 새로운 조직의 선례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이런 장치는 근본적으로는 한 번도 토론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 공간을 가져보지 못한 동지들에게, 그들이 결정을 내릴 수 없고 의견을 낼 수 없다는 관행을 깰 수 있게 합니다. 대중교육의 이러한 몇몇 구체적인 장치를 통해 우리는 바리오스 데 피에의 조직 환경의 구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2005년 6월 아르헨티나 네우켄에서 나눈 대화).

민중들과 원주민의 이중문화 대학⁸⁾을 만든 에콰도르 원주민들이 이 영역에서 핵심적인 경험을 했다. 이 대학은 원주민들이 운영하는 거의 3천 개에 달하는 학교의 이중 언어, 이중문화 교육에서 축적된 경험, 그리고 브라질의 무토지농업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거점에서 1500개의 학교를 운영하며, 교육자, 전문가, 당원을 키워내는 다층적인 공간을 운영한 경험도 수용한다. 또한 멕시코 치아파스 원주민의 경험도 언급할 만하다. 그들은 1994년 봉기 이후 자치 교육 시스템을 마련했다(Parra 2000).

8) 아마우타위 와시(Amawtay Wasi) 대학이라고도 불리며, 에콰도르 원주민연합(CONAIE)과 원주민 문화 연구소(ICC)가 중심이 되어 90년대부터 준비해 2004년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옮긴이.

IX. 여성의 새로운 역할 구축

시베치(Zibechi 2003)는 또한 현재 원주민 여성과 여성 농민, 피케테로 운동의 여성이 하원의원, 사령관, 사회와 정치지도자로서 자기 조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현상을 강조한다. 시베치에 의하면, 이러한 사실은 훨씬 더 깊은 현상, 즉 최근 수십 년간 재구성되며 나타난 사회조직과 영토조직 내부에서 새로운 젠더 관계가 정립된 것이 일부 겉으로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며 진전과 후퇴를 거듭하며 현재에도 진행 중이다. 바리오스 데 피에의 경험을 통해 운동을 구성하고 있는 대다수가 여성이라 하더라도 수적으로 많다는 것이 조직 운영에서 높은 직책을 맡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조직은 대다수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네우켄의 바리오스 데 피에는 80%가 여성입니다. 이것은 피케테로 조직의 여성 구성원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 여성은 모든 것을 도맡고 있으며, 즉 여성은 노동 그룹을 조율하고, 생산 과정을 조율해가며, 건강과 교육부문에 참여합니다. (...) 그러나 우리가 가장 드러내고 싶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어떤 공간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여성 동지들의 능력을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룹을 조율하고, 이끌어가야 하는 순간에는 항상 남자가 등장합니다. (...) 나는 이것이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문화적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커다란 결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2005년 6월 아르헨티나 네우켄의 바리오스 데 피에의 여성 지도자와 나눈 대화)

X. 노동 조직의 재구성과 자연과의 관계

시베치에 의하면 현재 운동에서 땅, 공장, 주거지를 사주와 십장이 없이 생산이 가능한 공간으로 가시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곳에서는 일의 분업을 최소화하고 동등하고 수평적인 관계를 지향한다(Zibechi 2003).

그러나 노동자가 점거한 공장을 보면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위계적인 조직의 형태와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동등하고 수평적인 조직 형태가 일정 정도 공존하고 있다.

각 단계는 피라미드 구조를 이룬다. 그러나 각 단계마다 기업의 문제와 노동조합의 문제를 결정하며, 각 조합원은 한 표씩 가지고 자치회에서 결정을 내린다. 자치회는 최소한의 조합원 수에 대한 규정을 갖고 있으며, 다수결로 결정을 내린다(2004년 9월 아르헨티나 코르도바의 라 프렌사 협동조합의 조합원과 나눈 대화).

이런 공간들은 환경보호에 유념하며 소외를 유발하지 않는 새로운 생산 관계를 만들어갈 것이다(Zibechi 2003).

이에 대해 협동조합 조합원은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제품과 다른 형태의 관계를 맺는 좀 더 인간적인 일, 어떤 의미에서는 자본주의 논리가 부과한 노동과 반대되는 노동에 대해 이야기한다.

협동조합은 노동자에게 노동 외의 다른 것을 더 요구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노동에 대한 다른 관점입니다. 협동조합의 노동자는 노동자이기도 하고, 기업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관점을 적용해야만 하며, 생산품, 자신이 만들어내는 물품과 다른 관계를 맺어야만 합니다. 이는 노동 그 자체가 더욱 인

간적인 것이 되도록 합니다. 이는 그가 자신이 만드는 제품에 더 많이 연루되고, 거기에 사람의 관심이 더 많이 담기도록 하며, 모든 이들 사이에 더 많은 상호관계가 존재하도록 합니다. 지금 말한 대로라면, 만일 누군가가 신문에 해를 끼치는 일을 하면 이는 나에게 직접 해를 끼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기업의 이익이나 피해에서 직접적인 이득이나 손해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자본주의 시스템하의 기업과는 다른 것입니다. “기업이 잘되면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므로 우리 모두 앞으로 나아갑시다.” 이 구절은 듣기 좋은 말, 피부로 와 닿지 않는 무엇입니다. 반면, 협동조합은 내가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규정에 의해 운영됩니다(2004년 9월 아르헨티나 코르도바의 라 프렌사 협동조합의 조합원과 나는 대화).

XI. 집단행동의 형태와 의미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시베치는 과거의 도구화된 행동 형태가(그가장 좋은 예는 파업이다) 자기 확정적인 형태로 대체되고 있으며, 이러한 형태를 통해 새로운 행위자들이 가시화되며, 그들은 자신들의 특징과 정체성의 징표를 재확정짓게 된다고 말한다(Zibechi 2003).

시베치는 예로, 경찰이 유일하게 자신들을 존중할 때는 도로 점거를 할 때인 것 같다고 말하는 피케테로 운동원과 25년 전부터 공공장소의 이름을 모임의 이름으로 삼은 5월 광장의 어머니회를 언급한다.

동일한 의미에서, 스바파는 현재의 사회운동은 그저 방어적인 대응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다양성을 지키고 옹호하는 것을 통해 대안적인 새로운 해방 전략의 가능성을 열어가는 선제적인 측면을 갖는다고 주장한다(Svampa 2007).

이러한 운동은 사주의 막강한 해고 권한에 대항하는 비전통적인 직접 행동을

일반적 투쟁의 도구로 채택한다. 비제도권적인 행동을 우선시하는 태도는 제도적인 중재(정당, 노조 등)의 위기와 한계를 드러내며, 거대한 권력 불균형이 존재하는 현재 권력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된다. 이러한 직접 행동은 꼭 제도권에 들어가고자 하는 의도를 갖는 것은 아니다(Svampa 2007).

이에 대해 코르도바 주민자치회 구성원은 이러한 행동의 특징은 무엇에 반대하는가가 명확하다는 점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매우 명확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걸 매우 명백한 것이고, 거기서도 드러났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원치 않는지는 명확했습니다. ‘모두 떠나라’라는 구호는 그런 상황을 매우 잘 반영한 것이었죠(2004년 9월 아르헨티나 코르도바의 바리오 포에타 루고네스 자치회의 구성원과 나는 대화).

그들은 무엇을 만들어나가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원치 않는 것에 대해서보다는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나 코타렐로는 일레로 피케테로 운동에서 도로나 거리를 점거해서 막아버리는 것(거기서 ‘피케테로’라는 이름이 기원했다)처럼 제도를 무시하는 경향이 얼마간 있다 하더라도 실업자만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으며, 다른 방법도 사용해 투쟁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Cotarelo 2007).

이 글의 관점을 견지하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집단행동의 양식을 여러 정황에 따라 살펴보면 그런 행동의 충돌적인 면과 대안적이고 자율적인 면 사이에 긴장감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우리는 ‘공장을 점거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이 생산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2005년 4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서 파신포트⁹⁾ 공장의 구성원과 나는 대화).

집단행동의 충돌적인 면을 보면 기성 권력의 형태와 공간에 도전하며 움직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드 세르토는 이를 전술의 공간이라고 불렀고(de Certeau 2000), 란사라는 탐험의 행동으로 명명했으며, 다른 저자들은 항의 혹은 사회적 충돌이라고 명명했다(Inigo Carrera 2001; Cotarelo 2007; Seoane y Taddei 2000).

집단행동의 대안적·자치적인 면을 보면 무엇보다도 대안적이고 자치적인 공간을 건설하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 드 세르토는 이를 전략으로, 란사라는 탐험의 행동으로 명명하며, 구티에레스는 대안적인 것이라고 부르며(Gutiérrez 1989), 네그리는 반권력(Negri 2003), 홀러웨이는 반권력 혹은 반정치(Holloway 2002), 스콧은 인프라정치(Scott 2003)라고 부른다.

한편 다발로스는 현재의 사회운동이 자유 민주주의의 개념을 해체해서 이를 통해 해방적인 정치적 실천을 이루지 못했다고 주장한다(Davalos 2006). 즉, 현재의 사회운동은 자유 민주주의에 의문을 던지지만 동시에 그것을 유일하게 가능한 권력투쟁의 지평으로 간주한다. 정치적 대표성과 대표적이고 절차적인 민주주의는 계급투쟁에 배치되며, 개인의 자유는 혁명의 개념에 배치된다.

다발로스는 신사회운동의 투쟁이 자유주의 제도를 옹호한다고 본다(Davalos 2006). 그래서 시장은 합리성을 조율하는 구심점이 되어 부의 생산과 분배를 통제할 수 있는 인간의 설계 능력에서만 아니라 분석의 장에서 계급투쟁을 사라지게 하고, 과잉으로 인한 갈등을 경제의 자연 법칙이라는 판관에게 맡겨버린다.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신화화된 가정은 계급투쟁에 내재한 권력 관계를 형이상학의 망토로 가려버리는 역할을 한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운동은 작은 정부가 계

9) 파신포트(FaSinPat): '사주 없는 회사'(Fábrica Sin Patrones)의 첫 철자를 따서 만든 조어로 아르헨티나 네우켄 주에 있는 보도블록 제조회사였던 사느 세라믹 사가 2001년 말 파산하자 2002년 노동자들이 공장 자주관리를 시작하며 붙인 이름이다-옮긴이.

확하는 내용의 일부를 갖고 논의와 논쟁을 벌이지만 신자유주의 의제의 보편성에 대해서는 논쟁을 벌이지 않고, 정치에 대해서는 논쟁하지만 권력에 대해서는 논쟁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올리베르 코스티야는 이런 입장과 약간 견해를 달리해 신사회운동이 권리를 가진 시민사회라는 개념, 참여라는 개념, 자유 민주주의 지평을 넘어 관료적이지 않은 공적 공간을 구축해가고 있다고 지적한다(Oliver Costilla 2007). 이런 운동은 기에르모 오도넬이 위임민주주의(*democracia delegativa*)라고 명명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으며, 이와 반대로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에서도 신자유주의 의제를 비판하며 시민사회의 권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본다.

XII. 자치회의 형태로 발전해가는 조직

스바ampa에 의하면, 제도권 정치가 폐쇄적이고, 위임민주주의에 더욱 가까워지는 동안 제도권 밖의 집단행동은 직접민주주의 형태를 발전시키는 길을 걸어왔다(Svampa 2007).

직접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형태는 파신포트 노동자들이 노동자 자주관리 공장의 국유화를 제안한 데서 찾을 수 있다.

우리의 제안은 노동자의 통제를 받는 국유화입니다. 즉, 정부가 오늘이라도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인력을 공장을 배치해 공장을 운영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 노동자들이 자치회에서 선발한 한 무리의 동지들을 공장에 배치할 것이며, 그 그룹은 자치회의에서 다시 선발됩니다. 그들이 할 일은 만일 회사가 10만 폐소를 벌면 어디에 투자했는지를 보고, 회사가 다친 사람을 병원에 데려

가지 않으면 병원에 데려가고, 병원에 가서 조치를 취했는지 안 했는지 보는 식의 통제권을 갖는 것입니다(2005년 4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파신파트의 노동자들과 나눈 대화).

직접민주주의, 강력한 자치가 중심이 된 참여 방식은 위계적이지 않고 유연하며, 수평적 관계와 민주주의를 심화하고자 하는 구조를 만들어내려는 경향에 반영되어 있다(Svampa 2007).

이런 자치회의의 형태는 사회 투쟁의 경험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권리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치회의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노동조합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책임감을 갖도록 만들 때에만 노동조합이 책임을 진다는 점입니다. 만일 내가 지지하는 노동조합 대표가 내일 어딘가에 가서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내가 표를 던진다면 그것은 그가 그 일을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 스스로 확신을 가진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를 지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가 혼자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은 두 주체 사이에 약속한 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도맡겠다.’고 말하는 관료가 필요한 것이라면 일이 수월하겠지만, 염두에 둘 점은 관료가 일을 맡을 경우 나의 요구는 이뤄지지만 책임은 그 사람 혼자서 지기 때문에 그는 일처리에 대해 내게 의견을 물어볼 수도, 물어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자치회에서 일하자.’라고 말한다면 이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일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노동조합 대표가 나를 대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내일 집행하거나 일을 처리할 때 내가 그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이 역시 노동자나 동지가 갖는 책임입니다(2005년 4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파신파트 노동자와 나눈 대화).

이런 맥락에서 자치회의 형태의 조직은 핵심적인 의미를 갖게 되며,¹⁰⁾ 그 수준과 표현 방식은 다르겠지만 아래로부터 형성된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저항과 교섭을 재창조하고 강화한다(Svampa, 2007).

이러한 자치회의 형태는 새로운 형태의 관계 맺기, 결정하기, 공동 공간 건설을 포함한다. “새로운 형태의 관계 맺기, 개인이 아니라 집단 차원에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자각, 철회가 가능한 명령, 자치회 차원의 결정, 위원회의 참여, 마을의 여성과 남성 동지들이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2004년 9월 아르헨티나 코르도바의 테레사 로드리게스 운동 멤버와 나눈 대화).

XIII. 간헐적인 사회참여

바칼루리스(Vakaloulis 1999)에 의하면, 비록 현재 개인들이 다른 이들과 공유하는 공통의 목적을 위해서 운동과 시위에 참여하지만 그들은 자치와 직접 참여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한 우려 때문에 개개인이 운동과 시위에 참여하더라도 다른 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런 일에만 전념하지 않으며, 그들은 사회참여는 간헐적이거나 비연속적이 된다.

아르헨티나 코르도바의 한 마을 자치회의 경험은 과거에 조직이나 당에 가입한 적이 있는 이들과 과거에 전혀 정치 참여를 해보지 않은 이들 사이의 참여 형태가 다름을 보여준다.

10) “중요한 결정은 자치회에서 다룹니다. 자치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2005년 6월 아르헨티나 네우켄의 협동조합 아도스(ADOS: 수년간 재정위기를 겪어오던 네우켄 주의 아도스 병원이 2003년 파산하자 직원들이 자주관리를 시작해 조합의 형태로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다-윌킨이) 멤버와 나눈 대화).

나는 과거에 정치에 참여해본 적이 있는 이들이 지속성을 가진다는 것, 즉 그들이 끝까지 가는 이들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끝까지’라는 말은 오늘 전화를 걸면 우리 모두가 모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는 당원이 되어 일을 해나가는 것을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당원이었던 적이 없는 사람이나 마을 이웃은 새로운 것을 다시 찾으려는 열정을 가지고 모이며, 상황을 경이롭게 받아들이고 자신들이 이미 해방되었고 그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모임에 갑니다. (….) 매우 이상적인 부분, 매우 좋은 것이 생겨나지만 거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은 점점 사라져갑니다(2004년 9월 아르헨티나 코르도바의 알토 알베르디 마을 자치회의 여성 회원과 나눈 대화).

조직에 대한 이런 식의 전면적이지 않은 소속감은 참여의식의 부족으로 이해할 수도 있었지만, 현 상황에서 가능한 사회참여의 한 양태라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XIV. 권력 관계에 대한 폭넓은 시각

신사회운동의 등장으로 혁명 운동의 정치 투쟁과 노동자 계급에서 상대적으로 명확했던 몇 가지 사항은(시스템의 혁명적인 변화를 위한 조건으로서의 권력 개념, 혹은 혁명으로 이행하고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조직으로서의 정당이라는 개념)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다. 신사회운동은 권력 장악을 주장하거나 중앙집권적이고 위계적이며 전문화된 정당 창당을 내세우지 않으며, 이와 반대로 좌파가 전통적으로 권력이라고 규정한 영역의 바깥에 자리하고 있다(Oliver Costilla 2007).

올리베르 코스티야(Oliver Costilla 2007)에 의하면, 이런 신사회운동은 권력관계에 대해 훨씬 폭넓은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 시각에서 운동은 제도권이나

법적 변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며, 공적 이익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끼치게 된다. 또한, 이 같은 관점에서 신사회운동은 권리 투쟁을 통해 시민 사회 교체의 상업적 형태를 바꾸는 요소가 된다.

권력분산과 좀 더 느슨한 조직이라는 관점, 더 열린 담론, 다양하고 곳곳에 퍼진 정치적 참여를 통해 사회운동은 시스템을 바꾸고 권력에 대한 대안적인 시각을 가지려는 도전을 하게 된다(Oliver Costilla 2007).

사회운동의 여러 가지 시도는 완결된 대답을 제시하기보다는 권력, 정치, 조직 등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러한 질문은 대안적인 권력에 대한 전망을 갖고 대안시스템을 만들어가는 투쟁의 길에서 대답을 찾게 될 것이다(Oliver Costilla 2007).

이런 의미에서 신사회운동은 새로운 개념과 실천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20세기 노동자운동과 사회주의 경험에 대한 비판을 수행하게 된다. 이로써 해방적인 지평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분산이 일어나게 되어 권력과 대중 참여에 대한 새로운 전망, 조직의 새로운 제안, 행동과 지향의 새로운 프로그램이 생겨나게 된다(Oliver Costilla 2007).

그러나 지금까지 언급한 몇몇 경험에서 보면 권력을 이해하는 이러한 새 방식은 훨씬 더 세밀하며, 우리가 권력과 집단 조직을 이해하는 더욱 고전적인 방식의 사고와 결합되어 있다. 이에 대한 대화를 보자.

집단적이고 연대적인 도구를 형성하는 것은 민중 권력을 건설하려는 우리 이상의 일부입니다. 참여민주주의, 즉 민중이 주인 되는 민주주의는 파트리아 리브레가¹¹⁾

11) 파트리아 리브레(Patria Libre): 1987년 아르헨티나 코르도바에서 결성된 좌파 조직. 90년대 카를로스 메넴 집권기에 격렬한 저항 활동을 했고, 이후 '바리오스 데 피에'라는 이름의 피케테로 운동을 추진, 결성했다-옮긴이.

민중 권력의 공간을 건설하는 데 갖고 있는 개념의 일부분입니다. 우리는 운동의 내부에서 그런 얘기를 던지고, 점진적으로 수용하지만 동지들은 정당의 지지자도, 당원도 아닙니다(2005년 6월 아르헨티나 네우켄의 바리오스 데 피에 조직의 한 여성 지도자와 나눈 대화).

또한, 나는 바르셀로나에서 존 홀러웨이(John Holloway)와 대담하면서 그의 책 제목 『권력을 잡지 않고 세상을 바꾸기』와 사파티스타의 경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심스럽게 얘기한 적이 있다. “한편으로는 사파티스타가 권력을 장악하지 않고 세상을 바꾸려 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런 아이디어는 사파티스타 투쟁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들 역시 우리가 권력 행사의 ‘전통적인’ 공간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곳을 점유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권력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강조하고 전통적인 시각을 버리는 것을 넘어 신사회운동이 권력 행사의 의미를 이해하는 방식을 어떻게 확장해가고 있는지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XV. 사회적 네트워크의 방식으로 자리 잡은 절합

여러 반대파와 함께 모이고 국내 차원과 국제 차원의 절합이 일어나는 열린 공간을 만들어내는 운동은 정치적으로 잘 구조화된 사회운동과 중요한 차이점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운동은 여러 세력이 합세하여 영토를 확장하고 다른 나라의 운동과 비공식적인 연대를 구축하기도 하면서 국내적 한계를 뛰어넘는, 느슨하고 반쯤 조직된 집단끼리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기도 한다(Oliver Costilla 2007).

현재 구축되고 있는 이런 네트워크는 종속된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 일어나

는 사회운동이 경제적 연대와 행동을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대안적 정보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인권을 야만적으로 짓밟던 시기에는 산업화된 나라와 중속된 나라의 해방운동 사이에 형성된 네트워크가 국제 포럼과 같은 역할을 했으며, 가끔은 인권유린을 막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Gutiérrez 1989).

이러한 운동의 투쟁은 배타적이지 않으며, 다국적 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착취의 과정, 사회구조를 교란시키는 불평등과 사회 파편화의 증가, 그리고 잠재적이거나 표출된 위기 상황에서 경제적 지배자들과 지배적인 정치 제도에 반대하는 다원성과 다양성을 표현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 중에서 다양한 지역적인 경험을 통해 국제적 절합이 형성된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파신포트 노동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청원서에 상당히 많은 서명을 받을 수 있었다. 그들은 주이탈리아 아르헨티나대사관 앞에서 편지 한 통을 읽었고, 동시에 아르헨티나 정부 앞으로 그 편지를 보내 노동자가 자주관리하던 사논 보도블록 공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네스토르 키르츠네르 대통령과 소비치 주지사가 의견을 표명하도록 했다. 또한 그들은 노동자 자주관리를 시작한 뒤 4년 동안 지속된 ‘사논 노동자들과의 연대’라는 이름으로 국제 캠페인을 벌였으며, 2006년 독일에서 월드컵이 열리는 기간 동안 노동자 자주관리를 지지하는 투쟁과 이를 알리는 활동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연대는 어떤 의미에서는 노동자들이 세계의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실행해온 행동(바르셀로나와 스톡홀름의 라디오와 인터뷰한 것, 로마,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스톡홀름 등 여러 곳의 조직과 대학에서 가진 대담회)의 결과였다.

XVI. 다양한 국내 조직과 운동의 지역적·국제적 협력

스바파는 1999년부터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하는 다양한 투쟁이 꾸러지기 시작해 힘을 얻고 한데 모일 수 있는 사회 포럼과 협력의 공간이 늘어난 것을 두고 새로운 국제주의가 형성되었다고 말한다(Svampa 2007). 이데올로기적이고 사회적인 차이를 넘어 시애틀, 제노바, 포르투 알레그레, 나이로비에서부터 이라크전쟁에 반대하는 전 세계적인 회의까지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를 비판하는 반시스템 담론이 형성되어왔고, 이는 적어도 세 개의 공통 요소를 갖고 있다. 즉, 자본의 초국적화로 인해 등장한 새로운 지배구조에 대한 질문, 세계화의 결과로 사회적 관계가 점점 상업적 거래로 바뀌는 것에 대한 거부, 문화적 다양성을 수호하고 이를 재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경험은 깊고 개성적인 방식으로 사회운동의 실천을 변화시키고 있으며(Petras 2003), 무엇보다도 19세기 말부터 시작해 지속적으로 결성된 인터내셔널이 수행한 세계적 차원의 사회·정치적 절함과 연대라는 과거 전통과 맞닿아 있으면서도 동시에 단절하는 상황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국제주의는 운동에 가담한 행위자들의 두드러진 사회적 지향으로 인해 새로움을 갖는다. 그들은 주로 사회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언급되며, 그들의 사회적 지향에는 이데올로기적이고 정치적인 성향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전혀 없다고 전제할 수는 없다. 이런 운동이 결집한 데서 볼 수 있는 사회적 주체들이 이질적이고 다양하다는 점(노조, 농민, 원주민, 여성, 환경·학생 조직 등), 이러한 결집을 통해 획득한 지리적 확장, 그리고 지구적인 행동의 조율과 공동 캠페인에 중점을 두는 절합을 수용한 조직의 형태 역시 새로운 점이다(Seoane y Taddei 2000).

이 글에서 언급한 조직 중 이러한 공간에 직접 참여한 경험을 들려준 곳은 많

지 않지만 그중에서 파실파트 노동자의 참여와 자신들의 영토에서 이러한 국제적인 만남의 장을 조직한 사파티스타의 경험을 언급할 수 있다.

XVII. 결론

이 글의 초반부에서 밝힌 것처럼 2000년에서 2010년 사이 10년 동안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 과정은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갔으며, 이는 신자유주의 정책 이식에 대해 반대하며 1990년대에 증폭된 사회 갈등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는 오늘날 사회과학의 이해와 개념화에 도전하기는 하지만 모든 사회 투쟁을 다 아우르지는 못한다.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 다뤘다. 항의의 형태와 운동 시작 초기 절합의 과편화, 투쟁 형태의 영토화와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공간의 재의미화, 사회운동·제도·정당 사이에서 자치를 찾기 위한 새로운 관계 모색, 문화에 대한 재평가와 정체성의 확립, 교육 공간 생성과 고유한 지식인을 만들어내는 능력, 여성의 새로운 역할 구축, 노동 조직과 자연과의 관계 재구조화, 집단행동의 형태와 의미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조직이 자치회적 형태로 발전한 것, 전면적이지 않은 사회참여, 사회적 네트워크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연대, 다양한 운동과 국내 조직들 사이에 지역적이고 국제적인 차원의 협력 등이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지식’(Haraway 1991)을 만들어내기 위해 이 글은 여러 사회운동과 연계한 경험과 다양한 연구자가 언급한 특징을 함께 배치해 이해를 돕고자 했다. 이런 경험은 항상 잠정적일 수밖에 없는 개념화를 확립하거나 아니면 긴장관계에 있었다. 어쩌면 집단행동이 현재 라틴아메리카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방식을 확정하기보다는 어쩌면 그런 방식에 대해 질문하고 의심하고 의문

을 던진다고 말하는 편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이 글은 이미 다른 이들이 지나왔고, 길을 가는 다른 동지들이 앞으로 이어나가게 될, 항상 열린 길의 일부가 되고자 한다.

— 정승희 옮김

원제와 출처

"Características actuales de la movilización social en América Latina",
OSAL, Año XII, N° 30, noviembre, pp. 43-64.

참고문헌

- Ciuffollini, María Alejandra(comp.)(2007), *En el llano todo quema: movimientos y luchas urbanas y campesinas en la Córdoba de hoy*, Córdoba: Universidad Católica de Córdoba.
- Colectivo Situaciones(2002), *19 y 20: apuntes para el nuevo protagonismo social*, Buenos Aires: Ediciones de Mano en Mano.
- Cotarelo, María Celia(2007), “Movimientos sociales, partidos y los nuevos formatos organizativos. Tercera parte”, clase del curso virtual *Resistencias, luchas emancipatorias y la cuestión de la alternativa* del Programa Latinoamericano de Educación a Distancia(PLED).
- Dávalos, Pablo(2006), “Movimientos sociales y razón liberal: los límites de la historia” en *OSAL* Año VII, N° 20, noviembre.
- de Certeau, Michel(2000), *La invención de lo cotidiano 1. Artes de hacer*, México: Universidad Iberoamericana / Instituto Tecnológico y de Estudios Superiores de Occidente.
- Gutiérrez, Guillermo(1989), “Argentina. Los nuevos movimientos populares. Respuesta a una situación estructural”, *Revista Alternativa Latinoamericana*, N° 6.
- Haraway, Donna(1991), *Ciencia, Cyborg y Mujeres. La reinención de la naturaleza*, Madrid: Cátedra.
- Holloway, John(2002), *Cambiar el mundo sin tomar el poder*, Madrid: El viejo topo.
- Iñigo Carrera, Nicolás y María Celia Cotarelo(2001), “La insurrección espontánea”, trabajo inédito del Programa de Investigación sobre el Movimiento de la Sociedad Argentina, Buenos Aires: PIMSA.
- Merklen, Denis(2005), *Pobres ciudadanos. Las clases populares en la era democrática (Argentina, 1983-2003)*, Buenos Aires: Gorla.
- Negri, Antonio(2003), *Diálogo sobre la globalización, la multitud y la experiencia argentina*, Barcelona: Paidós.
- Laclau, Ernesto(1996), *Emancipación y Diferencia*, Buenos Aires: Ariel.
- Laclau, Ernesto y Chantal Mouffe(1985), *Hegemonía y Estrategia Socialista*, Madrid: Siglo XXI.
- Oliver Costilla, Lucio(2007), “Cuatro puntos sobre movimientos sociales, partidos y los nuevos formatos organizativos en América Latina. Segunda Parte”, clase del curso virtual *Resistencias, luchas emancipatorias y la cuestión de la alternativa* del Programa Latinoamericano de Educación a Distancia(PLED).
- Parra, Marcela Alejandra(2002), “Sociedad Civil, Movimiento Zapatista y Conflicto en Chiapas”, tesis para optar al grado de maestra en Ciencias Sociales, inédita, México: FLACSO,

- Petras, James(2003), “Argentina: valoración general tras 18 meses de lucha”.www.rebelion.org/hemeroteca/petras/030611petras.htm
- Rebón, Julián(2003), “Algunas reflexiones preliminares acerca de los denominados procesos de recuperación en la Ciudad de Buenos Aires”, trabajo realizado para el curso *Neoliberalismo y configuración de la Protesta Social en América Latina* del campus virtual del CLACSO, inédito.
- Scott, James(2003), *Los dominados y el arte de la resistencia*, España: Txalaparta.
- Seoane, José y Taddei, Emilio(2000), “La conflictividad social en América Latina” en *OSAL*, Año I, N° 2, septiembre.
- Seoane, José y Taddei, Emilio(2003), “Neoliberalismo y conflicto social en América Latina”, clase N° 1 del curso *Configuración de la protesta social en América Latina* del campus virtual del CLACSO.
- Svampa, Maristella(2007), “Movimientos sociales y escenario político: las nuevas inflexiones del paradigma neoliberal en América Latina”, trabajo presentado en la *VI Cumbre del Parlamento Latinoamericano*, Caracas, 31 de julio al 4 de agosto de 2007.
<http://www.maristellavsvampa.net/archivos/ensayo38.pdf>
- Tarrow, Sydney(1997), *El poder en movimiento. Los movimientos sociales, la acción colectiva y la política*, Madrid: Alianza.
- Vakaloulis, Michel(1999), “Antagonismo y Acción Colectiva”, *Travail Salaré et Conflit Social, Actuel Marx: Confrontation*, París: PUF.
- Zibechi, Raúl, Artículos varios en *América Latina en Movimiento*(ALAI).
<http://alainet.org/>.
- Zibechi, Raúl(2003), “Movimientos sociales latinoamericanos: tendencias y desafíos” en *OSAL*, Año IV, N° 9, enero.